



# 이화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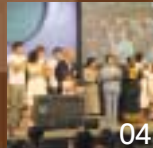
발행인·신인령 | 편집인·박통희 |  
 편집·홍보과 | 발행·이화여자대학교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3277-2114, 3277-2047~9  
 팩스·364-8011 | www.ewha.ac.kr  
 웹진 이화소식·news.ewha.ac.kr  
 2005년 9월 9일 제 71호



02



03



04



11



11



05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역대상 28:20)

## ■ Ewha 1886-2006

### ‘이화 창립’의 참뜻, 오늘에 되살린다

내년 에 창립 120주년을 맞는 본교가 ‘이화 창립’의 참뜻을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기념 사업을 전개키로 하고 그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본교는 6월22일, 창립 12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총장)를 발족하고 산하에 기념사업·홍보분과(위원장 박통희 기획처장), 기념행사분과(위원장 송덕수 교무처장), 편찬분과(위원장 이배용 이화역사관장)를 구성, 분과별 활동에 들어갔다.

신인령 총장은 “창립 120주년 기념사업은 이화가 그동안 받아 온 사랑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화가 120년전 세워진 참뜻을 가장 잘 되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기념사업의 큰 틀이 짜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총장은 또한 “앞으로 기념사업준비위에서 결정하게 될 사업 및 행사 외에도 본교는 이화·삼성캠퍼스센터 신축, 이화학당 한옥교사 복원사업, 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EGPP) 등을 120주년 사업으로 이미 진행해 왔으며 이화110년사 편찬 등도 수년전부터 준비해 현재 완성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제3세계의 여성인재 120명을 수년간에 걸쳐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EGPP)의 경우, 120년 전 미지의 땅 조선에서 단 1명의 학생을 놓고 교육을 시작한 창립자 스크랜튼 여사의 뜻을 기리고

EGPP 등 120주년기념사업 본격추진

The 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EGPP) is a global outreach program initiated by Ewha Womans University with the goal of educating student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business, education, and global issues in the 21st century.

**Application Guidelines**

Application Period: September 1st to September 15th, 2005

Application Fee: \$50

Selection Process: Interview and Written Test

Selection Results: September 20th, 2005

Application Form: Available on the EGPP website

이화가 축적해온 교육역량을 세계 여성들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5월, 시행이 결정된 바 있다.

〈EGPP포스터〉

현재 창립 120주년을 맞는 내년에 1차 입학생을 선발한다는 계획으로 EGPP 소개책자, 입시요강, 학교 홍보물 등을 주한 외국공관 및 해외공관, KOTRA 해외공관, 각국 교육부, 본교 자매대학, 해외교육원, 해외 선교 동문 등에게 발송해 놓은 상태. 신입생 선발 실무를 맡은 입학처는 10월 중 아시아 등 주요 대상국을 돌며 우수신입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 200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8월 26일 대강당)



## “나눔과 섬김 실천하는 참된 이화인으로 살아가길”

학사 801명 · 석사 746명 · 박사 65명 세상속으로

“정든 이화를 떠나지만 여러분은 졸업을 통해 영원한 이화 가족이 되었습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이화인입니다!”

8월 26일(월 ·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열린 200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신인령 총장은 새로운 출발점에 선 이화인들에게 “가다 쉬고 싶을 때, 재충전이 필요할 때, 언제든 모교가 힘이 되어 주겠다”는 격려로 축하의 마음을 대신했다.

신인령 총장은 “때로 희망이 너무 커서 갈 길이 멀게만 보일 때, 이미 지나온 길을 보고 감사하며 쉬어갈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면서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참된 이화인으로서, 나와 사회에 대해 책임지려는 주인의식, 변화하는 세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열린 자세와 매사에 전력투구 하는 마음가짐으로 역경을 헤쳐 나가라”고 당부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인 이현숙(기독교학 4학년 제적 · 78학번)씨와 김선금(사학 4학년 제적 · 80학번)씨가 20여년 만에 명예졸업장을 받는데 이어 금혼학칙 관련 재입학자인 김수진(정외 · 56학번)씨 외 9명이 손녀뻘의 어린 친구들과 나란히 학사모를 쓰게 돼 눈길을 끌었다.

반세기만에 졸업장을 품에 안은 박 영(간호 · 57학번)씨는 “지난 3학기 동안 도서관 문 닫는 시간까지 앉아 공부하느라 견비통까지 생겼지만 마음만은 이팔청춘이었다. 88세의 노모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 졸업장을 보여드리고 싶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학위수여식 도중 교가를 부르면서 내내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유성숙(초등교육 · 61학번)씨는 “이화는 내게 단순한 학교 이상의 특별한 존재였다. 후배들이 스무살 열정을 영원히 간직하라고 건네 준 장미 20송이는 가장 소중한 졸업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학사 801명, 명예졸업 2명, 석사 746명, 박사 65명 등 총 1614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졸업생 대표는 사회과학대학 심리학전공 권효원(4.3만점에 4.18)씨가 맡았다.



학사모를 쓴 금혼학칙 관련 재입학자들. (왼쪽부터 이선영, 박윤자, 유성숙, 박 영씨.)

## 민주화운동 관련자 2명, 20년 만에 명예졸업

지난해 8월 후기졸업식에서 본교 역사상 최초로 전해성(76 · 영문) 동문 외 3명이 명예졸업장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국내 대학 최초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인 이현숙(기독교학 · 78학번)씨와 김선금(사학 · 80학번)씨가 명예졸업의 기쁨을 누렸다.

80년대 초, 동아리연합회장으로 활동하다 4학년 1학기 때 제적된 이씨는 졸업 뒤에도 10년간 인천과 부천 지역의 노동운동 단체에서 활동해왔다. 이씨는 “20년이 지나 졸업장을 받게 되니 격동 속에 보냈던 학창시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며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다”고 담담하게 졸업소감을 밝혔다.

중 ·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이씨는 “그동안 복학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사회생활과 육아에 쫓겨 평범한 엄마로 살고 있다”면서 “예전엔 독재정권에 대한 반발로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봤지만 이



이현숙 씨



김선금 씨

제는 아이들에게 긍정의 힘을 얘기해 줄 만큼 균형감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졸업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이화동창회’에 가입하는 것. 그동안 졸업장이 없어 동창회에 들지 못했던 게 못내 아쉬웠단다.

2년 후배로 함께 졸업장을 받게 된 김선금씨는 “학업을 마치는 못 했어도 마음은 언제나 이화인이었다”면서 “졸업 못한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고마울 따름”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83년 4학년 재학 당시 학내 사복경찰 철수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다 구속되면서 학업을 중단한 김씨는 이후 성남의 공장에 위장 취업해 10여년간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그러나 늘 고되고 긴장된 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모든 활동을 접어야 했다고.

김씨는 “스스로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에만 집중했고 그 일이 사회운동이었을 뿐”이라며 “건강을 위해 10년 전에 시작한 국학 공부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



# 3년 연속 대학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

‘포스트게놈시대의 생명과학 융합체제 구축’ ‘21세기 국가인적자원개발 전문인양성’

**본교의** 특성화 사업 2가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 도 대학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향후 4년간 총 126억8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본교가 자유과제로 신청한 ‘포스트게놈시대의 생명과학 융합체제 구축’은 3년 연속 우수과제로 선정됨으로써 지난 2월 대교협 대학종합평가에서 생물 및 생명공학분야 전국 2위를 차지한데 이어 다시 한번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본교의 생명과학분야 특성화 사업에는 이서구, 이공주 교수를 비롯한 50여명의 전문연구진이 참여하게 된다.

지정과제로 선정된 ‘21세기 국가인적자원개발 전문인 양성’은 본교가 이화리더십개발 등의 운영을 통해 축적해온 여성리더 육성사

업의 노하우를 대한민국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조형 교수와 20여명의 교수진이 참여한다.



본교는 이 사업을 위해 최근 ‘국가인적자원개발 연구원’을 설립,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연구원’의 조형 원장은 “유아로부터 초·중·고생,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핵심역량을 어떻게 발굴해 키울 것인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본교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부속학교를 갖고 있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 유리하다는 점도 좋은 점수를 받은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년 600억원을 지원하는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에는 본교를 비롯,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30개 대학이 선정됐다.

## 거트루드 몽겔라

범아프리카 의회 의장

## 본교서 명예박사학위

‘세계 여성 인권과 평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



세계적 여성인권 및 평화운동가인 거트루드 몽겔라(Gertrude Mongella · 사진 오른쪽) 범 아프리카 의회 의장이 6월 20일(오전11시 · 대강당), 본교에서 명예문학박사(여성학) 학위를 받았다.

신인령 총장은 “UN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몽겔라 의장이 세계 여성인권과 환경, 아프리카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판단,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교에서 열린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의 기조연설자로 한국을 방문한 몽겔라 의장은 2004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범 아프리카 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유엔 여성 10년 사업성과 검토 및 평가를 위한 나이로비 세계대회’(1985)에서 부의장에 선출되면서 UN 활동을 시작한 그는 UN 세계여성대회 사무총장, UN 여성발전을 위한 국제연구와 훈련기관 이사, UN 여성문제와 발전을 위한 사무국 특사 등을 역임했다.

## 성균관대,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정식

“창조적 고급인력 양성에 최대한 협력”

본교 신인령 총장과 성균관대 서정돈 총장은 6월 14일(오후3시), 본교(본관 사회의실)에서 학술교류 협정식(오른쪽 사진)을 가졌다. 이 협정에 따라 두 대학은 앞으로 ▲교수 교류 ▲학생 교류 및 학점 상호 인정 ▲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 추진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 공동 사용 ▲국제협력사업 공동 수행 ▲교육망 공동 이용 등 다각적인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신인령 총장은 “두 대학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창조적 고급 인력 양성과 세계 수준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본교는 7월 20일(한국국제협력단 총재 접견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총재 김석현)과도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 개도국 대상 무상원조사업의 효과적 수행과 여성 봉사인력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도국에 대한 무상원조사업을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산하 출연기관으로, 현재 전세계 25개국에 987명의 해외봉사단원을 파견,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 사립대학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국제협력단과 이같은 협정을 체결한 본교는 앞으로 협력단이 파견하는 팀제 봉사단 중 본교 중심의 독립된 팀을 구성, 재학생들이 각종 해외 봉사사업에 참여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지역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8월 31일에는 카자흐스탄 유일의 여자대학인 카작 여자사범대학의 삼사 베르킴바예바 총장 일행이 본교를 방문, 신인령 총장과 학술교류조인식(아래 사진)을 가졌다.



카자흐스탄의 교육과학부 장관을 지낸바 있는 삼사 총장은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12만명의 고려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한국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본교와 교수, 학생 교류 및 다양한 학술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한편 본교 교육대학원은 6월 28일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싱가포르 국립사범대학과 3년 기한의 교류협정을 맺었다.

# 세계 여성 리더 · 전문가들 이화에 모이다

세계여성학대회 등 대형 국제학술대회 잇따라 치러내

**지난** 여름, 이화 캠퍼스는 전세계 학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작은 지구촌으로 변신했다.

6월 19~24일의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를 비롯, 통역번역대학원 제1회 국제학술대회, 아시아태평양 음악인지과학학회 제2차 국제학술대회 등이 본교를 무대로 잇따라 열렸고, 8월 26~29일에는 제13차 세계여성과학기술인 대회도 치러냈다.

‘경계를 넘어: 동-서/남-북 (Embracing the Earth: East-West/ North-South)’를 주제로 전세계 70개국 2063명의 학자, NGO들이 모였던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는 대회 사상 처음으로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것이 큰 화제가 됐다.

530개 세션, 2087편의 논문이 발표된 이번 대회는 학술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세계 여성들의 효과적인 네트워킹에도 큰 성공을 거뒀다는 평을 받았으며 대회 기간 내내 국내외 언론들로부터 뜨거운 조명을 받았다.

차기 대회 개최국으로 정해진 스페인 대표 아나



사바트 마르디네즈 교수는 “이화의 뛰어난 시설, 아름다운 캠퍼스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이화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번 대회가 큰 성공을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 24일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열린 통역번역대학원 제1회 국제학술대회에는 바바라 모저 제네바 통번역대학원 통역원장, 마르틴 포스트너 세계통번역대학원협회 회장, 마리안 레데리 파리 통번역대학원 명예교수 등 세계 통번역계의 거목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학번역, 통역전문성 확보, 국제회의의 통역

평가 등 관련 이슈들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8월 4~6일(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의 아시아태평양 음악인지과학학회 제2차 국제학술회의에

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독일,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학자들이 음악학, 심리학, 음악교육학, 컴퓨터과학, 생리학, 신경과학 등 음악현상에 대한 심리학적, 인지과학적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여성과학기술인:미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을 주제로 한 제13차 세계여성과학기술인대회에는 전세계 50여개국 700여명의 여성과학자들이 모여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환경기술, 에너지기술, 우주항공기술,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와 과학교육, 과학윤리, 양성평등, 리더십 등에 대해 4일간 열린 토론을 벌였다.

## 의학 전문 교육의 새 비전 담았다

### 2007년 출범할 의학전문대학원 전용 ‘의학관’ 완공



의학관 봉헌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내외빈 인사들.

최첨단 시설의 강의·연구 공간을 갖춘 본교 ‘의학관’이 1년 4개월간의 공사를 마무리짓고 8월 16일(오후 4시), 목동병원내 의과대학 김옥길 홀에서 봉헌식을 가졌다.

2007년 출범할 의학전문대학원 전용 교육 연구공간이 될 ‘의학관’은 A동과 B동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번에 증축된 A동 7~9층에는 연구실 및 실험동물실이 들어섰다. 연면적 4336평,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신축된 의학관 B동은 의료원이 지하 2층~지상 4층을, 의학전문대학원이 지상 5~10층을 사용하며, 5층에는 의과학연구소가 입주했다.

신인령 총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60주년을 맞이한 의과대학이 내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새 역사를 시작한다”며 “그간 인류애와 사랑이라는 이화의 이념으로 헌신적인 의료인을 양성해왔던 것을 되새기며, 의학관의 첨단 시설을 토대로 세계 속의 이화로 뻗어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첫선을 보인 의학전문대학원 전용 공간은 연면적 1860평 규모의 학년별 시청각 강의실, 소그룹 토의실, 실습실, 토론 위주 교육을 위한 문제 중심 학습공간인 PBL(Problem Based Learning)실, 임상실습 중에 익힌 수기를 감독관과 1:1로 대면해 시행하고 평가받는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실과 자율학습실, 체력 단련실, 동아리실, 휴게실, 컴퓨터실, 기도실 등 다양한 학생 복지 공간을 갖추고 있다.

한운섭 의과대학장은 “첨단 의학관이 완공됨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가기위한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보다 전문화된 의학교육을 바탕으로 우수한 여성 의료인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2005학년도 2학기 보직인사

## 이화의 교육환경 변화 선도할 새 진용 구축



신영수 교수



오병권 교수



양국경 교수



정복주 교수

2005학년도 2학기 보직인사가 발표되었다(8월1일자, 9월1일자). 과학기술대학원장에 신영수 교수, 디자인대학원장과 디자인코리아 연구원장에 오병권 교수 등이 임명되었다.



우정원 교수



오용길 교수



최혜선 교수

| 보직명          | 성명  | 소속      |
|--------------|-----|---------|
| 과학기술대학원장     | 신영수 | 건축학     |
| 디자인대학원장      | 오병권 | 시각정보디자인 |
| 디자인코리아연구원장   | 오병권 | 시각정보디자인 |
| 사회복지대학원장     | 양국경 | 사회복지학   |
| 실용음악대학원장     | 정복주 | 성악      |
| 음악대학장        | 정복주 | 성악      |
| 자연과학대학장      | 우정원 | 나노부/물리학 |
| 조형예술대학장      | 오용길 | 한국화     |
| 생활환경대학장      | 최혜선 | 의류직물학   |
| 인간생활환경연구소장   | 최혜선 | 의류직물학   |
| 교양영어실장       | 최혜원 | 영어영문학   |
| 전문영어연계전공주임교수 | 최혜원 | 영어영문학   |

| 보직명              | 성명  | 소속      |
|------------------|-----|---------|
| 박물관장             | 오진경 | 미술사학    |
| 이화리더십개발원장        | 최선열 | 언호영     |
| 이화리더십개발원부원장      | 김정선 | 사회학     |
| 이대학보사주간          | 이재경 | 언호영     |
| 통역번역연구소장         | 이연향 | 통역학     |
| 지능형 나노·바이오소재센터소장 | 최진호 | 나노부     |
| 국가인적자원개발연구원장     | 조형  | 사회학     |
| 음악연구소장           | 윤금희 | 간반악기    |
| 교육학연구소장          | 임현식 | 교육학     |
|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장      | 장영민 | 법학      |
| 의과학연구소 부소장       | 오세관 | 의학      |
| 통역번역대학원 교학부장     | 김해림 | 통역학     |
| 교육대학원 교학부장       | 박은혜 | 유아교육    |
| 디자인대학원 교학부장      | 최유미 | 시각정보디자인 |
| 정보과학대학원 교학부장     | 원숙연 | 행정학     |
| 정책과학대학원 교학부장     | 원숙연 | 행정학     |
| 국어국문학과전공주임교수     | 김현숙 | 국어국문학   |
| 독어독문학과전공주임교수     | 최성만 | 독어독문학   |

| 보직명             | 성명  | 소속          |
|-----------------|-----|-------------|
| 미술사학과장          | 홍선표 | 미술사학        |
| 미술사학연계전공주임교수    | 홍선표 | 미술사학        |
| 사회학전공주임교수       | 함인희 | 사회학         |
| NGO연계전공주임교수     | 함인희 | 사회학         |
| 자연과학대학 분자생명과학부장 | 고수영 | 분생부/화학      |
| 수학전공주임교수        | 윤정호 | 수학          |
| 대학원 음악학부장       | 채문경 | 간반악기        |
| 기악학부장           | 채문경 | 간반악기        |
| 간반악기전공주임교수      | 채문경 | 간반악기        |
| 미술학부장           | 우순옥 | 회화·판화       |
| 디자인학부장          | 장동훈 | 시각정보디자인/미디어 |
| 시각정보디자인전공주임교수   | 장동훈 | 시각정보디자인/미디어 |
| 한국화전공주임교수       | 김보희 | 한국화         |
| 교육학과장           | 임현식 | 교육학         |
| 도덕·윤리교육연계전공주임교수 | 임현식 | 교육학         |
| 교육공학과장          | 봉미미 | 교육공학        |
| 멀티미디어학연계전공주임교수  | 봉미미 | 교육공학        |
| 법과대학 교학부장       | 강동범 | 법학          |
| 법학과장            | 강동범 | 법학          |
| 의과대학 기획부장       | 정성철 | 의학          |
| 약학대학 교학부장       | 정낙신 | 약학          |
| 외과학교실주임교수       | 김광호 | 의학          |
| 방사선종양학교실주임교수    | 이경자 | 의학          |
| 부속이화·금관중고등학교장   | 강순자 | 과학교육        |



이화인  
이화in

###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떠나는 김길현 교수·원경연 동문 부부

## “공부해서 남 주러 갑니다”

원샷의 나이에 캄보디아로 간다고 했다. 그것도 요즘 가장 잘 나간다는 분자생명 과학부 교수직을 그만두고, 용감해서 무모한 그가 궁금했다.

“유학시절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20년 동안 품었던 꿈을 이루러 가는 거죠.”

서글서글한 인상의 김길현 교수(약학·분자생명과학부)와 아내 원경연(무용, 81년 졸) 동문 부부. 안팎이 모두 ‘이화표’인 이들 부부는 캄보디아에 대학을 세우러 함께 간다고 했다.

“120년 전 외국인 선교사가 이화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대학을 만들고 싶어요. 이 대학에서 많은 캄보디아인을 기독교적 양심을 가진 지식인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전통적인 불교국가인 캄보디아는 70년대 중반 ‘킬링 필드’라는 대학살을 겪으면서 지식인의 맥이 끊겼다고 한다. 국민의 70%가 문맹인데다 대학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곳이 국립대인 프놈펜 대학 하나뿐일 정도. 2003년 이화선교회와 함께 처음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김교수는 ‘교육이 최선의 선교’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과감히 캄보



이행을 결심했다. 사서 고생하는 김교수 덕분에 다섯 가족은 출지에 이산가족이 됐다. 부부는 캄보디아에, 세 아들은 미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 쉽지 않은 결정에 원씨는 많이 망설였다고 했다.

“아직 중학생인 막내아들이 눈에 밝히고, 은근히 생계 걱정도 되는 거예요. 제 몸도 약골인 터라 남편보고 몇년만 더 참아달라고 했죠. 그런데 이 양반이 그러데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고 건강할 때 가자’고. 이 말에 ‘내가 졌다!’ 손 들고 말았죠.”

이제 며칠 후면 김교수 부부는 낯선 땅 캄보디아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 프놈펜 대학에서 1~2년간 언어과정을 밟으면서 현지 사정을 파악한 뒤 후원단체인 ‘아시아교육봉사회’와 함께 대학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우리 교육 현실이 경쟁력에만 치우쳐 있어 지식을 다른 사람을 누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식을 섬기는 도구, 봉사하는 도구로 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식년이거나 은퇴한 교수들이 와서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면 좋겠다”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공부해서 남 주러 가는’ 그의 행보가 자못 기대된다. <효>

# 이화와 함께 걸어온 당신, 감사드립니다

2005년 8월 31일자로 김엽자 교수 등 13명이 정년퇴임했다.  
오랜 세월 이화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정년퇴임 교수들의 프로필을 싣는다.

## 김엽자 교수(사학)



1970년 3월부터 35년 6개월간 사학과에 재직해 오면서 여성사학자 양성과 역사학, 특히 중국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총무처장 재임시에는 사무 및 인사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교직원간의 융화에도 힘썼다. 1964년 '후한서(後漢書)'의 열녀전을 중심으로 고대 중국여성의 윤리관을 연구해 여성사 분야를 개척했고, 하버드대 연청연구소 방문학자(1973~75), 중화민국 국립대만대학 역사연구소 방문학자(1986~87),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공산권 연구위원(1979~83)을 지내며 중국현대사와 중국여성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중국근현대사학회 창립을 주도, 1992년부터 초대회장, 운영위원 및 교문을 역임했다. 동양사학회 평의원과 역사학회의 평의원, 감사, 편집자문위원 및 법인이사로도 활동했다.

1998년에는 독립기념관 이사직을, 1999년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맡아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최소자 교수(사학)



1969년 3월부터 36년 6개월간 사학과에 재직하며 명청시대사, 동서문화교류사와 한중관계사 분야에서 선구적이고 독보적인 업적을 이룩했다. 동서양의 상호 인식, 서학(西學)의 수용과 인식, 동서문화의 비교사적 연구 등으로 동서문화교류사를 동양사의 한 분야로 확고하게 정립했고, 한중통혼(通婚)연구, 조선과 청의 상호 인식 및 대외정책 연구를 통해 한중관계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역사학 관련학회 활동에도 매진, 1983년에는 명청사학회의 창립을 이끌면서 명청사 연구의 기틀을 다졌다. 2001년에는 여성 최초로 국내 동양사 연구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동양사학회 회장직을 맡아 한국 동양사학계의 비약적인 발전에 공헌했다. 본교 사학과장, 이화사학연구소장, 이화역사자료실장으로 재직하며 사학과 교과과정을 개선했고, 동서문화교류 관점의 세계관 및 양성평등적인 역사관의 수립과 본교 관련 사료의 기록·보존에도 힘썼다.

## 한인숙 교수(행정)



1981년 3월부터 24년 6개월간 행정학과에 재직하며, 지방행정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업적을 이뤘다. 지방자치, 지방행정 그리고 사회복지 등에 관련된 논문을 다수 발표했으며 이 논문들은 지방행정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여성의 비중이 낮은 행정학계에 여성 연구자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힘써 현재 제자들이 행정부 및 행정학계의 중요한 위치에서 활약하고 있다. 학회활동에도 활발히 참여, 행정학회 지방행정연구회 회장, 행정학회 섭외이사, 정치학회 상임이사, 지방자치학회 이사, 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이러한 열정적인 활동은 제자들이나 여성행정학자들에게 실력양성과 능력개발 측면에서 귀감이 됐다. 행정학과장과 법대학장을 역임하면서 초창기 행정학과의 기반을 닦고 발전을 이루는데 이바지했으며 경영연구소 소장 재임시에는 행정학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

## 김용운 교수(관현악)



1976년 8월부터 29년간 본교에 재직, 국내 최초의 비올라 독주자로서 비올라 음악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데 열정을 쏟았다. 70년대 KBS 교향악단의 수석주자로 10여년간 활동했으며 1972년에는 지휘자 Kurt Woss에게 발탁되어 Bruckner Orchestra의 제2수석으로 활약했다. 서울현악4중주단의 비올라주자, Linz 방송실내악단의 수석주자와 Wien 국립 Volksoper Symphony Orchestra의 비올라주자로 연주활동을 펼쳤다. 1978년 2월 서울 챔버오케스트라를 창단, 27년째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1983년 한국음악팬클럽에서 수여하는 '이달의 음악가상' 1987년 한국예총의 '제1회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 1989년 한국예술평론가협회의 '최우수 예술가상' 1992년 금호문화재단의 '금호예술상'을 수상했다. 후진양성에도 힘써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바이올린과 비올라 연주자들을 다수 배출했다.

## 서수정 교수(종교음악)



1966년 3월부터 39년 6개월간 종교음악과와 기악학부 건반악기 전공 교수로 재직하며 음악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종교음악과장을 역임하면서 후학의 양성과 음악대학의 발전에 공헌했다.

KBS 교향악단, 서울시향, 수원시향 등과 협연했으며, 특히 KBS 교향악단과 협연한 Chopin Concerto No.2는 실황연주음반으로도 제작되었다.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독주자로 참여했고, 독주회 및 앙상블 듀오연주회도 꾸준히 개최했다. 이같은 연주활동을 통해 보여준 음악에 대한 열정은 후학들의 귀감이 됐다. 1958년 본교가 주최하는 제5회 전국피아노경연대회 입상을 통해 예술계에 입문했으며, 1985년 오스트리아 Mozarteum International Academy에서 Diploma를, 프랑스에서 4 Piano Course de Piano Paris를 수료했다. 열정적인 연주가이자 모범적인 교육자로 근무해 1996년에는 30년 근속 표창을 수상했다.

## 이규도 교수(성악)



1976년 8월부터 29년간 성악과 교수와 음악대학장으로 재직하며 훌륭한 음악인들을 배출했고, '세계속의 이화음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했다. 연주활동에도 매진해 김자경오페라단과 서울오페라단 및 국립오페라단의 '라보엠' '리골렛토' 등 40여 편의 주옥같은 오페라에서 주역을 맡아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로 활약했다.

국내 대학 성악가들의 모임인 '프리마돈나'와 본교 성악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벨라보체'를 이끌어 성악계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1991년에는 한·일 친선음악회를 개최해 양국간 성악교류의 계기를 만들었다. 1962년 '제3회 동아일보주최국립대상' 1977년 '월간음악상' 1997년 '일본GIRO상' 2001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 2004년 '예총예술문화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예술의전당 이사, 국립오페라단 이사, 이대웅콩쿨 이사, 프리마돈나 운영위원장을 맡아 음악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 류희영 교수(회화 및 판화)



1984년 3월부터 21년 6개월간 조형예술대학 회화 및 판화 전공 교수로 재직하며 회화 및 판화 전공의 후학 양성과 조형예술대학 발전을 이끌어왔다. 20대 초반에 이미 국전에 데뷔했으며, 미니멀하면서도 강렬한 '색면회화' 작품 활동으로 1968년과 1971년 '문화공보부장관상', 1973년 '대통령상', 1979년 '예술원회장상'을 수상했다. 작품에서 보여준 시각예술 고유의

성역과 예술가의 독창성에 대한 의지는 후학들에게 모범이 됐다.

1975년에서 1980년까지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추천·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1996년부터는 ASIA국제미술전 한국위원회의 회장직을, 2000년부터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운영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1995년 조형예술대학장을 맡아 재임기간 중 조형예술대학의 학부제를 실현했고 조형예술대학 창설 50주년 전시회인 '이화, 액션, 비전'을 기획해 조형예술대학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 조정현 교수(도예)



1971년 3월 도예과에 부임, 한국 전통문화를 전하기 위해 '꽃담' '한옥의 건축도예와 무늬' '한국의 옛 옷' 등을 저술·출간했고 11회의 개인전을 통해 국내외에 한국 현대도예를 알리는데 열정을 바쳤다. 1969년에는 '국전 국무총리상'을, 1979년에는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1989년 '한국공예가협회 우수작품상' 1996년 '목양공예가상' 1990년 저서 '한옥의 건축도예와 무늬'로 '과학기술 저술상'을 수상했다. 한국공예가협회 회장과 한국도예가회 회장을 역임, 국내외의 수많은 공모전에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2002년부터는 미국·유럽을 순회하며 현대한국도예전을 열어 한국 도예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1998년부터 3년간 색채디자인연구소장을 지내며 색채디자인의 학문적인 체계를 구축했다. 2001년 조형예술대학장직을 맡아 국제 유수대학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선진 교육법을 도입했다.

## 임미자 교수(체육)



1969년 6월부터 36년 6개월간 체육학과에 재직, 운동생리학 분야의 기틀을 마련하고 운동을 통한 비만관리 및 여성의 운동능력향상 연구에 창의적 업적을 이뤘다. 꾸준한 비만연구로 운동을 통한 비만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다수의 비만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한비만학회와 일본체육학회, 일본비만학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국가간 운동생리학 분야의 학제 교류에 일익을 담당했다. 여성체육 활성화에도 힘써 여성노인들의 운동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동효과에 대한 연구에 큰 성과를 거뒀다. 대한비만학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비만학회 운동요법 분과위원장 및 대한비만학회 이사, 대한영양학회의 평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비만아동과 노인복지관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체육대학 내에 스포츠과학 학풍의 기반을 세우고 세계 최고의 스포츠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헌신했다.

## 권성원 교수(의학)



1976년 3월부터 29년 6개월동안 의학과에 재직하면서 국내 영상의학 분야 및 비뇨기과학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1996년 국내 최초의 영상의학비디오를 출판, 의학서적의 전자출판시대를 열었고 비뇨기과 연구 중 요로결석에 관한 연구논문은 최근까지도 비뇨기과학계에서 최고의 연구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1991년 국제영상비뇨기과 학회에서 '올림푸상'을, 1996년 대한의용생체공학학회에서 '메디슨의공학상'

을, 1997년 동아제약·의학신문에서 '동아의료문화상'을, 2005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수여하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사장, 한국전립선관리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수년간 국내 도서벽지에서 무료 전립선 검진사업을 활발히 전개, 의사 및 교육자로서 후학들의 귀감이 됐다. 또한 탁월한 행정능력과 포용력으로 전공의와 교수들이 연구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뇨기과학교실을 발전시켰다.

## 최용만 교수(의학)



1973년 5월 부임해 32년 4개월간 외과학교실에 재직하며, 외과학교실의 체계화와 전문화에 힘써왔으며 아버지 같은 인자함과 인내심으로 후학 교육에 전념했다. 1975~95년, 외과학교실의 주임교수와 동대문병원 외과과장을 역임, 학과를 전문화시키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1998년에는 어려운 시기에 있던 동대문 병원을 맡아 병원장으로서 탁월한

경영력을 발휘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내외 학회활동도 활발히 해 Fellow of International College of Surgeons, Fellow of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대한내시경장강경외과학회 회장, 서울기독의사회 회장 등을 지냈고, 현재 대한외과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대내외적으로 본교 의과대학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다. 항상 후학들을 보살피고 교육해 졸업생들이 외과의사로서의 자질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 장숙환 교수(의류직물)



1998년 3월 생활환경대학 의류직물학과에 부임, 우리나라 전통의상과 장신구를 연구하며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1999년 어머니인 담인(潭人) 장부덕(張富德: 1908~67년)님의 유품과 40여년간 모아온 개인 소장품 4000여점을 본교에 기증해 담인복식미술관을 개관, 초대 관장으로서 담인복식미술관을 국내 최고의 복식전문미술관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했다.

주요 논문으로 '우리나라 망건식(網巾飾)에 대한 연구' (1989) '裝身具傳統文化' (1997) '朝鮮王朝時代裝身具' (2001)가 있고, 저서로는 '전통 장신구' (2002) '전통 남자 장신구' (2003) '우리옷과 장신구(이경자·장숙환·홍나영 공저)' (2003)가 있다.

## 이계우 교수(국제학)



1998년 9월 국제대학원 국제학과에 부임, 열정적인 학문 활동과 학생 지도를 통해 국제대학원의 초석을 닦고 발전시키는 데에 건인자적 역할을 했다. 국제무역, 국제금융, 경제발전 등의 전공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특히 저개발국의 인적자원개발에 탁월한 학술 업적을 남겼다.

1972~98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경제전문가 및 정책자문관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국가의 담당부서 관리자로 활동했다.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이 드물던 시기에 세계은행에 근무하는 대표적인 한국인으로 알려졌으며, 세계은행 총재의 '최우수업적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제대학원 부임 후 국제통상협력 연구소장, 분쟁해결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며 연구사업을 독려해 우수교수로 선정됐다. 왕성한 활동력으로 정부와 민간경제단체 자문 등 사회봉사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2005학년도 하반기 신입교수 21명

## 이화의 전문인 양성 리드할 우수 교원 영입

이대기 교수(분자생명과학) 등 21명이 2005학년도 하반기에 본교 교수로 부임했다. 이번 우수 교원 영입으로 본교는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대학      | 전공(학과) | 성명                | 최종 출신학교                      | 최종학위/대표경력    |
|---------|--------|-------------------|------------------------------|--------------|
| 대학원     | 분생부    | 이대기               | 서울대                          | 이학박사         |
|         |        | 황은숙               | 서울대                          | 약학박사         |
| 국제대학원   | 국제학    | 마재신               | Brown Univ.                  | Ph. D.       |
| 정책과학대학원 | 정책과학   | 백용호               | S.U.N.Y.(Albany)             | Ph. D.       |
| 사회과학대학  | 경제     | 김윤경               | 게이오대(일)                      | 경제학박사        |
| 공과대학    | 컴퓨터    | 윤희진               | 이화여대                         | 공학박사         |
| 사범대학    | 과학교육   | 홍순태               | S.U.N.Y.(Stony Brook)        | Ph. D.       |
| 법과대학    | 법학     | 성기용               | 충남대                          | 법학석사/변호사     |
|         |        | 신승남               | Brooklyn Law School          | J. D./변호사    |
| 경영대학    | 경영     | 신종태               | Columbia Univ.               | Ph. D.       |
|         |        | 윤여선               | Univ. of Michigan            | Ph. D.       |
| 의과대학    | 의학     | 이혜진               | 이화여대                         | 의학박사         |
|         |        | 문진욱               | 연세대                          | 의학사          |
|         |        | 류동열               | 연세대                          | 의학석사         |
|         |        | 이호림               | Univ. of Tübingen(독)         | 의학박사         |
| 약학대학    | 약학     | 사홍기               | Rutgers Univ.                | Ph. D.       |
|         |        | 신동해               | 서울대                          | 이학박사         |
|         |        | 손형진               | Univ. of Iowa                | Ph. D.       |
|         |        | 유재상               | Northwestern Univ.           | Ph. D.       |
| 교무처     | 교양영어실  | 장 준               | 포항공대                         | 이학박사         |
|         |        | Thomas E. Webster | Univ. of Southern Queensland | M.Ed.(TESOL) |



이대기 교수



황은숙 교수



마재신 교수



백용호 교수



김윤경 교수



윤희진 교수



홍순태 교수



성기용 교수



신승남 교수



신종태 교수



윤여선 교수



이혜진 교수



문진욱 교수



류동열 교수



이호림 교수



사홍기 교수



신동해 교수



손형진 교수



유재상 교수



장 준 교수



Thomas E. Webster 교수



손은수 교수



정규원 교수



최국진 교수

## 2005년 2학기 석좌교수 명단

| 대학(원) | 전공(학과) | 직위  | 최종출신학교                             | 최종학위 |
|-------|--------|-----|------------------------------------|------|
| 대학원   | 나노과학부  | 손은수 |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 Ph.D |
| 의과대학  | 의학과    | 정규원 | 가톨릭대                               | 의학박사 |
|       |        | 최국진 | 서울대                                | 의학박사 |

## 2005학년도 2학기 승진 교원

교무처(처장 송덕수 교수)는 2005학년도 2학기 승진교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학기 평균 승진율은 66.7%이다.

**교수** 한소엽(분생부), 이인표(국제학), 박찬길(영어영문), 조지형(사학), 손운산(기독교), 박경미(기독교), 이준연(수학), 이동희(생명과학), 배일환(관현악), 송재광(관현악), 원형중(체육), 이용주(경영), 정문종(경영), 하은희(의학), 한평림(의학), 최규복(의학), 박시훈(의학), 김명현(의학), 유정현(의학), 하현주(약학)

**부교수** 구본관(국어국문), 최혜원(영어영문), 김영옥(언어영), 강승호(통계), 조월림(물리), 심현섭(특수교육), 최원목(법학), 김영석(법학), 양희동(경영), 이동현(의학), 이상화(의학), 서은경(약학)

**조교수** 윤석현(나노부), Jasper S. Kim(국제학), Heather A. Willoughby(국제학), 김현철(법학)

## 2005학년도 2학기 연구년 개시 교원

**1년 연구년** 이인표(국제학), 강진욱(국어국문), 전수용(영어영문), 배일환(관현악), 이종목(한국화), 조영식(산업디자인), 신은경(무용), 성태제(교육학), 조경원(교육학), 김희진(유아교육), 이종경(사회생활학), 김규현(과학교육), 석인선(법학), 임기환(의학), 문병인(의학), 김화정(약학), 도한식(소비자인간발달)

## 1년(분할) 연구년

배윤수(분생부), 조동섭(컴퓨터), 박준영(정외), 김경화(수학), 안병태(화학), 박애정(섬유예술)

## 수업경감 연구년

함정혜(체육), 오옥환(교육학)

## 반년 연구년

이민영(나노부), 이종진(중어중문), 권은미(불어불문), 김혜숙(철학), 윤난지(미술사학), 윤미재(건반악기), 이영희(사각정보디자인), 정태윤(법학), 최원목(법학), 정성애(의학), 김수지(간호학)

## 2005학년도 2학기 우수교원

## 강의우수 교수

이공주(분생부), 지윤규(정보통신), 송기정(불어불문), 양 윤(심리), 정태윤(법학), Jennifer Smith(교양영어)

## 강의우수 시간강사

조선숙(국어국문), 조성원(심리)



# 이공계 교수들, 꾀직꾀직한 연구 업적 잇달아

## 산소화 효소, 줄기세포 분화 미스터리 규명, 항암제 개발 등

본교 이공계 교수들이 최근 사회적 이목을 끄는 남다른 연구 업적으로 '과학 이화'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남원우 교수(나노과학), 정낙신·이상국 교수(약대), 황은숙 교수(분자생명과학)들이 그 주인공.

남원우 교수는 본교 생체모방시스템 연구단과 함께 산소화 효소의 역할 및 화학반응 매커니즘을 규명해 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7월,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수여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을 받았다.

산소화 효소는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 생체활동에 필수적인 작용을 하는 효소의 한 종류. 이의 매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은 생명현상 이해 및 생체 반응을 모방하는 인공 생체 시스템 개발, 그리고 이를 이용한 산업적 촉매와 신약 개발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남교수의 연구 결과는 산소화 효소의 중간체 구조 및 매커니즘을 밝혀내 이 분야 연구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약대 정낙신·이상국 교수팀은 지난 6월 부작용을 줄인 새로운 항암제 'LJ-715'를 개발하는데 성공, 미국의 신약개발 전문회사인 렉산 파마슈티컬사와 공동으로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

이들이 개발해낸 신약은 핵산 계열의 뉴클레오사이드계 화합물로 산소 대신 탄소를 함유한 5원환 구조(carbasugar)를 갖고 있어 체내에서 위액이나 효소

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사 대신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정 교수 연구팀은 이번 개발로 렉산사로부터 20만 달러(2억원)의 연구비를 받았으며 앞으로 임상실험 단계마다 이 물질의 사용대가로 일정비율의 로열티를 받기로 했다. 정 교수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항암 물질을 해외 신약개발회

사가 로열티를 주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술을 인정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황은숙 교수(분자생명과학)는 지난 8월 중순,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연구원인 남편 홍정호 박사와 함께 성체 줄기세포가 분화되는 미스터리를 밝혀내 언론의 집중 조명

을 받았다.

본교 약대 출신인 홍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성체 줄기세포의 일종인 중간엽 줄기세포가 뼈를 만드는 조골 세포로 분화되는 것을 유도하고 지방세포로 분화되는 것을 막는 'TAZ' 유전자를 발견했다. 홍 교수는 "성체 줄기세포 분화와 관련된 요인들은 상당수 규명됐지만 'TAZ' 유전자처럼 이런 요인들을 관장하는 근원적 열쇠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연구 논문은 사이언스지 8월12일자에 소개됐다.

### 동 정

#### 박일홍 · 양종만 교수(물리)



서울대 방형찬, 이형목 교수와 함께 전국의 중고교 및 대학에 '고에너지 우주선(cosmic ray)'

검출 환경을 설치, 이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네트워크화한다는 측정망 구축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이배용 교수(사학)

고대부터 근대까지 한국의 여성 리더들을 재해석한 '한국 역사속의 여성들'(여진이 간)을 출간했다. 선덕여왕, 신사임당, 유관순, 유화부인, 소서노, 나혜석, 박경원, 최승희 등 한국 역사속의 대표적 여성들을 통해 감춰진 여성사를 복원해 보이고 있다.



#### 박석순 교수(환경학)

본교 환경문제연구소 주최로 7월 21일(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팔당특별대책과 상하류 공생의 딜레마'라는 심포지엄을 가졌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는 과학적인 환경정책수립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



#### 최병욱 교수(의학)

지난 7월, '마퀴스 후스후' 2006년판, 영국 IBC의 '21세기 저명 지식인 2000인' 2005년판, 미국 ABI의 '올해의 인물' 2005년도판 등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동시 등재됐다. 손과 발모양이 기형적으로 변

하는 희귀병 '샤르코-마리-투스(CMT)' 질환 연구에 매진해 온 최 교수는 관련 논문만 25편이 넘어 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 최민숙 교수(독문)

8월29일, 파리 소르본느 대학에서 열린 세계독어독문학과 학술 심포지엄에서 '세계문학으로서의 에테아·호프만의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왕'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 김영희 교수(무용)



지난 6월4일, 김영희 무트댄스는 멕시코 트라스칼라 Centro de convencion에서 멕시코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공연을 가졌으며, 6월 7~8일 쿠바 하바나 Mella Theater에서 쿠바정부가 주최하는 제4회 International congress culture & development 행사에 국내 무용단으로는 최초로 초청받아 부채춤, 화관무, 장고춤, 몽, 아리랑, 아베마리아 등을 공연했다.



#### 이명선 교수(보건교육)

지난 6월 12~16일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개최된 2005 International Conference of Safe Communities에서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safety behaviors of elementary schools in Korea'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 정하영 교수(국문)

저서 '춘향전 연구'가 대한민국학술원에 의해 2005년도 기초학문 육성 우수학술도서(한국학 분야)로 선정됐다.



### 부음

#### 김동일 교수 별세



김동일 교수(사회)가 9월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서울 법대, 캔터키대를 거쳐 81년 본교 사회학과에 부임한 김 교수는 한국의 농촌 문제,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연구에 남다른 열정을 바쳐왔다. 그가 90년대에 강의했던 '정의 사회학'은 법정대 강당에서 진행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지금도 명강의로 기억되고 있다. 한국농촌사회학회, 한국청소년학회, 한국노년학회 등의 회장을 역임했다. 발인 9월7일, 장지 성남 영성원.

## 수시1학기 모집 최종합격자 351명 선발

-지난해보다 높은 16.02대 1의 경쟁률 보여-

본교는 8월 6일(목), 수시1학기 모집을 통해 일반우수자전형 226명(경쟁률 20.26대 1), 특별활동 우수자 특별전형 40명(10.53대 1), 문학창작특기자 특별전형 10명(10.8대 1) 등 총351명을 선발했다. 경쟁률은 16.02대 1로 지난해 경쟁률 13.24대 1에 비해 높아져 다양화된 수시전형에 대한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모집단위별로는 약학과가 10명 모집에 589명이 지원, 58.9대의 경쟁률을 보였고, 초등교육과는 4명 모집에 184명이 지원해 46대 1을, 수학교육과는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일반우수자전형에 고교과정에서의 학업성취도와 언어 및 수리적 의사소

통 능력, 잠재적 수학적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논술고사가 실시됐다. 또한 비교과 영역의 다양한 활동 실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특별활동 우수자 특별전형은 지난해 수시2학기 모집에 처음 도입된 후 올해부터는 수시1학기모집으로 변경되었다.

수시1학기 모집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국제학 전문인 특별전형은 올해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이 다소 변경되어 실시, 6.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9월부터 치러질 수시2학기 모집 전형에도 교과 중심이 아닌 전문 영역에서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는 미래과학자 특별전형(70명)과 외국어우수자특별전형(100명)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 분야에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의 지원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화로 제26호 발간

입학처(처장 박동숙 교수)가 발행하는 고교생을 위한 입학홍보 책자인 Ewh@ro 제26호(사진)가 나왔다. 총 32쪽, 올 컬러로 꾸며진 이번 호에는 특집기사로 '내 인생의 멘토'가 기획되어 한국음악과 황병기 명예교수와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는 가야금 4중주단 '여울', 물리학과 박일홍 교수와 과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 최초로 NASA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박나희(물리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언론인의 길을 걷고 있는 MBC 김은혜 기자(신문방송 93년졸)와 서현진 아나운서(무용 03년졸)의 이야기가 인터뷰로 소개되었다. 이밖에 캠퍼스 재발견, 이화인만의 특별한 마니아 소개, 수시2학과와 정시모집 입시정보 등 다채로운 내용이 감각적인 편집과 함께 담겨 있다.

### 교수용 학생면담 가이드 북 제작

학생처 학생상담센터(소장 이용하 교수)가 교수-학생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교수용 '학생면담 가이드' 북을 제작 배포했다. 이 책은 학생면담의 과정과 기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제시했으며, 13가지의 면담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시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와 문제별 해결방안 및 주의점을 요약, 정리했다. 각종 교내외 장학금과 학생들의 교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관련 기관들도 안내하고 있다. 이용하 소장은 "이 책자가 교수들의 학생면담에 실질적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며, 나아가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유대감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화리더십개발원, 다양한 위탁교육과정으로 인기

이화리더십개발원(원장 최선열 교수)에 기업 및 기관들로부터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과정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7월 8~9일에는 한국IBM(주) 여성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2005 Talented Women Leadership Workshop'을 열어 여성관리자의 리더십 역량 개발과 조직 내 갈등관리, 비즈니스 협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같은 기간,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주최한 '여성과학기술인 리더십과정'이 김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20여명의 전국여성과학기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성공하는 여성들의 다섯 가지 테마' '관리자, 리더, 리더십' 'ESLD 360도 다면평가' '여성리더십과 임파워먼트' 등 자기인식을 통한 리더십 역량 점검과 대인관

계역량 증진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7월 14~15일에는 법제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제정책의 성인지 개발과정'을 열어 성주류화에 대한 이해와 법제정책의 성인지적 실행력 강화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벌였다.

### 세계 미술대학 교류전 개최

세계 미술대학 교류 공동체(W.A.V.E.- World Art College Vision Exchange)가 세계 미술대학의 교수 및 대학원생들의 교류를 정례화 할 목적으로 구성됐다. 그 첫 번째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본교 조형예술대학과 영국의 Camberwell College of Art, Surrey Institute of Art & Design, Winchester School of Art가 공동 주관하는 'W.A.V.E. 2005 교류전'이 9월 6~24일, 이화아트센터와 까사미아 M-Post 갤러리에서 열린다.

본교를 비롯한 4개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의 판화, 회화, 북아트, 미디어아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사진, 도예, 설치작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130여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과 영국의 서로 다른 표현세계를 비교하며 시각예술에 대한 경험과 생각의 차이가 공유되는 국제적인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제교육원, 국제하기대학 성황리에 개최

본교생 및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국제교육원(원장 이재경 교수)주최 2005학년도 국제하기대학이 6월27일~8월5일, 개최됐다. 총 129명이 수료한 올해는 국제재단과 국제교육원의 심사를 거쳐 외국인 학생 3명에게 본교 Gloria Hahn 장학금 및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이 지급됐다. 1971년부터 매년 개설되는 본 프로그램은 한국학 관련 영어 강의와 다양한 실습들로 구성되어 대표적인 이화 국제 교류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 수상소식

### 중앙도서관 이나니 주임 교육부 장관상 수상



중앙도서관 정보개발과 이나니 주임이 6월29일 '2005 전국 대학도서관대회'에서 국가지식 생성 및 유통체계 우수기여자로 선정되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부상으로 오슬로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관 기회가 주어졌다.

## 전체직원연수

### 이화를 향한 한마음 즐겁게 모았습니다



총무처(처장 양혜순 교수)가 주관하는 전체 직원 연수가 7월 8~9일 강원도 보광휘닉스파크에서 열렸다. 총 190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에서는 주철환 교수(연세대학교)의 '영상시대의 창조적 리더십', 장윤재 교수(기독교학부)의 '세계변화의 흐름 이해' 특강과 조별 그룹 활동, 문화유적 답사 등으로 이어졌다.

## 이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명을 다했습니다

### 정년· 명예 퇴직 직원 6명

인문과학대학, 교목실 등에서 36년을 넘게 근무해 온 이계옥 과장 등 4명이 정년퇴직으로, 인사과 박혜선 과장과 대외협력과 이양준 과장이 명예퇴직으로 오랫동안 몸 담아온 이화를 떠났다(8월 31일자). 퇴임 직원들을 위한 환송예배는 8월 24일 이화·포스코관 B153호에서 열렸다.



이계옥



이선택



김운식



양영진



박혜선



이양준

| 구분   | 소속    | 성명  | 직위       | 근무내역                                 |
|------|-------|-----|----------|--------------------------------------|
| 정년퇴직 | 교목실   | 이계옥 | 사무직원(과장) | 기독교학과/인문과학대학/교목실<br>36년 4개월 근무       |
|      | 총무과   | 이선택 | 기능직      | 총무과<br>22년 10개월 근무                   |
|      | 시설과   | 김운식 | 기능직      | 시설과<br>16년 4개월 근무                    |
|      | 구매과   | 양영진 | 사무직원(주임) | 경리과/대학보건소/후생복지과/구매과<br>37년 6개월 근무    |
| 명예퇴직 | 인사과   | 박혜선 | 사무직원(과장) | 학무과/입학과/학적과/사회과학대학/인사과<br>33년 3개월 근무 |
|      | 대외협력과 | 이양준 | 사무직원(과장) | 경영연구소/대외협력과<br>24년 6개월 근무            |

## 직원 인사발령

| 소속       | 성명  | 직위       | 발령사항                                             |
|----------|-----|----------|--------------------------------------------------|
| 인문과학대학   | 유제욱 | 사무직원(주임) | 파견: 이화여자대학교 노동조합 상급단체<br>(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8월1일자) |
| 기획과      | 지태원 | 사무직원     | 명: 인문과학대학 (8월1일자)                                |
| 이화리더십개발원 | 한미라 | 사무직원(주임) | 명: 국가인적자원개발연구원 (8월1일자)                           |
| 교무과      | 송유정 | 사무직원(주임) | 명: 인사과(보:과장, 면:주임) (9월1일자)                       |

## 2005학년도 해외연수 대상자

| 직종  | 소속        | 성명  | 직종  | 소속    | 성명  |
|-----|-----------|-----|-----|-------|-----|
| 일반직 | 교육대학원     | 이미경 | 기술직 | 중앙도서관 | 이현주 |
|     | 기획과       | 김미숙 | 기능직 | 총무과   | 이상두 |
|     | 인사과       | 석설희 |     | 총무과   | 이철기 |
|     | 연구과/산학협력과 | 박혜진 |     | 후생복지과 | 김명자 |
|     | 언어교육원     | 윤재숙 |     | 시설과   | 이건복 |
| 기술직 | 의과대학      | 석진호 |     |       |     |

## 통역번역대학원, IT전문 통역사 양성 교육과정 개설

통역번역대학원(원장 최영 교수)과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가 IT통역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에 대한 상호협조를 위해 협약서를 체결, 6월 10일 조인식(사진)을 가졌다.

이 협약에 따라 6월13일~7월15일, 본교에 IT전문 통역사 양성과정이 개설되어 47명의 첫 수료생을 배출했다.

본 과정은 IT분야의 산업·정부·학계 전문가



그룹과 IT전문 통번역 노하우를 가진 본교 통번역 교수 및 강사가 참여, IT 산업 동향, IT839정책, 시스템 아키텍처, 스토리지, SoC, 보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웹서비스, 미들웨어, 디지털 콘텐츠, 무선 및 이동통신, 네트워크 convergence, DMB/DTV 등의 주제를 강의한다.

통역번역대학원은 이 과정이 IT관련 기업체에 가는 우수 통번역 인력 공급을, 수료생들에게는 실무 업무 능력 강화라는 상호 윈윈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 가족과 사회복지

### 양옥경 지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총체적,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전환적인 시각이 요구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연구해 온 것을 집대성한 것이다. 가족의 개념 및 가치관의 변화, 가족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 등을 통한 한국 가족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고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들도 살펴본다. 일본, 대만, 호주 등의 가족제도 및 정책과의 비교 분석도 실고 있다. <1만2천원>

## International Studies Primer

### Brendan M. Howe 역음

이 책은 국제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한 국제학 입문서로, 국제정치, 국제법, 국제경영, 국제무역, 국제기구 등 이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본교 국제대학원(GSIS)과 국제학부(DIS)에서 제공되는 필수 과목이나 동계 및 하계 국제학 프로그램 수강하는 학생들, 국내 혹은 해외의 국제학부에 지원하고자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다. 국제화특성사업단이 기획한 'Jang-Hee Yoo'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다. <1만원>

## 생명 윤리와 법

### 권복규 김현철 지음

최근 줄기세포연구와 인간배아복제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생명 윤리의 문제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대표적인 생명 윤리 분야의 주제를 열거하고 전반부에는 사실에 대한 과학적 이해 및 그에 수반되는 윤리적 함의를, 후반부에는 그것의 법률적 해석을 담았다. 일반 독자들이 오늘날 생명 윤리 영역의 대표적인 사안들과 그에 대한 윤리적, 법적 접근방식을 쉽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복잡한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리게 되는 판단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평이하게 설명하고 있다. <1만1천원>



## 아시아 8개국 여성학 교재 시리즈 (Women's Studies in Eight Politics)

아시아 여성학 센터가 기획하는 '아시아 여성학 교재' 시리즈 중 중국편, 인도편, 인도네시아편, 한국편이 함께 선보였다. 이로써 앞서 출간된 태국편, 필리핀편, 대만편을 합쳐 총 7종이 완성되어 6월 19~23일 본교에서 개최된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마지막 일본편도 곧 출간될 예정이다.

### Women's Studies in China:

Mapping the Social, Economic and Policy Changes in Chinese Women's Lives (중국편)

Edited by DU Fangqin and ZHENG Xinring | \$ 18.00, 2만1천원

### Women's Studies in India:

Some Contemporary Contours(인도편)

Edited by Pooja JUYAL and the Faculty of Isabella Thotum College | \$ 18.00, 2만1천원

### Indonesian Women in a Changing Society(인도네시아편)

Edited by Kristi Poerwandari | \$ 23.00, 2만5천원

### Women's Experiences and Feminist Practices in South Korea(한국편)

Edited by CHANG Pilwha and KIM Eun-Shil | \$ 18.00, 2만1천원



##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 (The Spirit of Korean Cultural Roots)

지난 3월 처음 선보인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가 『한국의 탈춤』(영어판)을 끝으로 1차분인 한글판 10종, 영어판 10종의 출간을 완료했다. 앞으로 매년 20종씩 출간하여 2009년 완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 시리즈는 10월에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출품될 예정이다.

### 한글판

• 한국의 탈춤/조동일 지음 (1만2천원)

### 영어판

- Korean Dance by Kim Malborg (U.S. \$ 15.00)
- The Poetic World of Classic Korean Women Writers by Lee Hai-soon (U.S. \$ 15.00)
- Korean Mask Dances by Cho Dong-il (U.S. \$ 15.00)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한국의 대표적인 학술발전 지원 기관인 대한민국학술원이 시행한 「2005년도 기초학문분야 우수학술도서」 사업 결과, 본교 출판부 도서인 『민주주의와 규제』(G. 펠러스트 외 지음, 조택 옮김)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 제39회 외무고등고시 이주원 동문 최종 합격

이주원 동문(비서·01년 졸)이 지난 7월8일 제39회 외무고등고시 외교통상직렬에 최종 합격했다. 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올해 외무고시 합격자는 총 19명으로, 이중 과반수가 넘는 10명이 여성이다. 이 동문은 학부에서 국제정치 수업을 통해 외교관으로서의 꿈을 갖게 되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가 중 우리나라가 11위의 국제 교역 규모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통상 분쟁을 조정하는 통상법률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가야금 4중주단 ‘여울’

본교 한국음악과 출신 이수은(02년 졸, 사진 왼쪽부터), 안나래(03년 졸), 박민정(03년 졸), 기숙희(01년 졸) 동문으로 구성된 가야금 4중주단 ‘여울’이 7월19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두 번째 연주회를 가졌다. 황병기 본교 명예교수가 이름 붙여준 ‘여울’은 12현 가야금과 25현 개량 가야금으로 전통음악부터 재즈, 록, 클래식까지 아우르는 크로스오버 연주활동을 펼쳐, 국악계뿐만 아니라 문화계에 신선함 바람을 몰고 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 동문 동정



### 전신애(영문, 65년 졸)

7월5~8일 '2005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에 참석, 개최식 기초발제자로 '여성 리더십'에 관해 강연했다. 미국 노동부 여성국 차관보로 활동 중인 전 동문은 현재 부시 행정부에 진출한 최고위급 한국인이다.



### 이정순(신문방송 67년 졸)

제3기 영상물등급위원회 선임 위원장으로 6월7일 선출됐다. 대한일보 기자출신으로 YWCA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이 동문은 지난 1월부터 김수용 전 위원장을 대신해 2기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 강명순(시창각교육, 74년 졸)

5월31일 '클라란스 코리아'의 '모스트 다이내믹 우먼 어워드'를 수상했다. '부스러기 사랑나눔회'의 대표인 강 동문은 30여년간 어려운 형편의 어린이들을 보살피었다.



### 남영호(무용, 89년 졸)

세계적 권위의 '몽펠리에 무용축제' 2006년 행사에서 신작 발표를 위촉받았다.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안무가 겸 무용수로 활동 중인 남 동문은 한·불 공동 공연팀을 구성해 새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 황주리(서양화, 80년 졸)

'세월'이라는 제목의 25번째 개인전(8월24일~9월12일, 갤러리 아트사이드)을 가졌다. 의인화된 애완견을 통해 사람의 일상을 담은 흑백의 그림들과 총천연색이 입혀진 돌맹이 작품들을 선보였다. 최근 같은 제목의 산문집도 출간했다.



### 오경희(제약, 83년 졸)

개원 27주년을 맞이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첫 여성부장으로 임명됐다. 7월22일자로 자연생태부장에 오른 오 동문은 전문성과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2년 8월 생물자원과장으로 발탁된 지 3년 만에 승진을 하게 됐다.



### 남성희(신문방송, 78년 졸)

세계 최대의 친목봉사단체인 국제로타리클럽 3700지구(대구)의 2005~06 총재로 취임했다. 한국로타리클럽 역사상 첫번째 여성 총재가 된 남 동문은 현재 대구 보건대학장을 맡고 있다.



### 이지선(유아교육, 01년 졸)

6월1일,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 중인 푸르메 재단의 홍보대사로 선임됐다. 이 동문은 전신 화상으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 올 가을 미 보스턴대학 재활상담 석사과정에 입학할 예정. 지난 7월에는 두 번째 자서전 '오늘도 행복합니다'를 출간했다.

## 동문들의 장학금 기탁소식

### '제가 받은 사랑 이화에 돌려드립니다'

#### 황은경 동문 1억원 약정



황은경 동문(약학 91년졸·사진 오른쪽)이 6월2일 장학금 1억원을 약정하고 매달 5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졸업 후 부산에서 약국을 경영해온 황 동문은 훗날 모교에 자신이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다는 소망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던 중 학과 동기인 이화정 교수(약학)를 통해 장학금을 약정하게 되었다. 황 동문은 본인의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특별히 지방 출신으로 외로움과 학비문제로 이중고를 겪는 학생들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약정을 위해 모교를 방문한 황 동문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에 놀랐으며 이화가 역동적인 여성지도자를 육성하는데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 어려운 후배들을 위한 선배들의 사랑 의과대학 동창회 장학금 기탁



제39차 의과대학 동창회 정기총회(5월 24일)에서 김화숙 현 동창회장, 지현숙 전 회장, 최보원 의대장학금기금위원회 운영위원장이 대외협력처에 총 2억519만5363원의 장학금기금내역을 전달했다. 의과대학동창회 장학금은 작년에 기탁된 유박영 동문(의학 74년졸)의 청박 장학금까지 합해 총 2억2519만5363원이며, 기금은 의대동창회 장학기금 위원회에서 선발한 장학생들에게 쓰여진다. 다음은 장학금 기탁자 명단.

오혜숙(의학 78년졸) 100,279,769원, 최보원(의학 69년졸) 21,337,805원, 이현숙(의학 64년졸) 10,815,950원, 김태일(의학 74년졸) 10,683,174원, 최혜영(의학 78년졸) 10,683,174원, 조종남(의학 75년졸) 10,668,917원, 한영재(의학 62년졸) 10,000,000원, 의대동창회 30,726,574원

## ESCC건립기금 모금 소식

### 훌륭한 교육의 장을 응원합니다 오경선 동문 5000만원 약정

오경선 동문(이영희 50기)이 지난 5월 ESCC 기금으로 5000만원을 약정하고 매달 500만원씩 납부하고 있다. 이화여성과위경영자과정에서 수학하면서 본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오 동문은 “교육사업이 훌륭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며 “늘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기부하고 싶었다”고 약정 계기를 밝혔다. 신실한 신앙으로 많은 선행을 실천해온 오 동문은 이미 1995년에도 학교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 후배들이 꿈을 이루는 공간이 되길 황영옥 동문 5000만원 약정

갤러리 라메르 관장인 황영옥 동문(섬유예술 69년 졸)이 지난 4월 ESCC 기금으로 5000만원을 약정했다. 갤러리 운영 전 교단생활을 했던 황 동문은 그림 연주를 즐기는 멋쟁이로 통한다. “대학이 마지막 공부의 장일지 모릅니다. 후배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고 많은 경험을 쌓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ESCC가 후배들에게 특별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약정에 대해 황 동문은 “자극히 평범한 사람이 한 일이라 뭐 특별한 게 없다”며 겸손히 소감을 전했다.



### 장학생의 학교 사랑 이경혜 동문 5000만원 약정

지난 7월 이경혜 동문(작곡 61년 졸)이 ESCC 기금으로 5000만원을 약정했다. “재학시절 내내 대학교회 성가대로 활동하며 장학금을 받았어요. 학교나 대학교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ESCC 소식을 전해 듣고 학교를 위한 좋은 일이라고 해서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이 동문은 기부금과 함께 자신이 작곡한 작품도 기증하기로 했다.



### 우복희 상임이사, 한인숙 교수, 김봉희 교수, 김병순 동문 기금 기탁

우복희 이화학당 상임이사(의학 63년 졸)가 ESCC 기금으로 20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한인숙 교수(행정)는 지난해 5000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해 행정고시 준비생들에게 지급한 데 이어 올해도 ESCC 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김봉희 교수(문헌정보)는 5000만원의 장학금을 약정, 급여공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ESCC 기금 1000만원을 약정하여 납부하고 있다.

김병순 동문(이영희 5기, ALPS 13기)은 ESCC 기금으로 지난해 2000만원을 기부한 데 이어 이번에 3000만원을 약정, 총 5000만원의 기금을 기탁했다. 김 동문은 장학사업에도 열의를 가지고 1999년과 2003년에 의대와 법대에 각각 장학금 1억원을 기부한 이화의 든든한 후원자이다.

### 이화ALPS 총동창회, ALPS 21기 소식

이화최고지도자과정(ALPS) 총동창회(회장 백해자)는 5월12일 ESCC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2005년 1학기를 수료한 ALPS 21기(회장 이동자)도 ESCC 기금 5400만원과 탁아소기금 5000만원을 모금해 대외협력처에 전달했다.

## 장학금 모금 소식

약정기간: 2005.5.7~8.11

### Palmer씨의 장학금

7월7일, 미국으로부터 대외협력처로 편지 한통이 배달되었다. 1959~60년 한국에서 미군으로 복무했던 Robert A. Palmer씨가 당시 본교에 재학 중이던 김숙자 동문(가정 63년졸)과 그 오빠인 김영훈씨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에 있을 당시 김 동문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따뜻한 호의를 잊지 못해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이다.

Palmer씨는 김 동문의 모교인 이화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격려금 \$100의 수표도 함께 보내왔다.

대외협력처를 통해 편지와 45년 전 사진들을 전달받은 김 동문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Palmer씨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했다.



### 기타 장학금 소식

지난 5월, 본교 경력개발센터가 주최한 '여성과 글로벌 리더십' 특강에서 강연한 이명박 서울시장(특강비 전액 47만8000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했고, 강권순 한국음악과 시간강사가 어려운 학생을 돕고 싶으며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했

## ESCC 건립기금 약정자 명단

약정기간: 2005.5.7~8.11

**국악부문** 이사라(75년졸) 100만원, 이순자(75년졸) 30만원, 이정애(75년졸) 20만원, 이정임(75년졸) 20만원, 임영미(75년졸) 20만원, 장성옥(75년졸) 50만원, 전신애(75년졸) 30만원, 한소미(75년졸) 30만원, 허영(75년졸) 30만원, 안희진(03년졸) 3만원  
**영어영문** 김현자(49년졸) 100만원, 김정매(63년졸) 100만원, 최영옥(Faith Kim, 63년졸) \$400, 고경원(71년졸) 100만원, 김성옥(71년졸) 100만원, 김수연(71년졸) 100만원, 김원심(71년졸) 100만원, 김정옥(71년졸) 100만원, 김진숙(71년졸) 50만원, 김혜경(71년졸) 100만원, 김호신(71년졸) 100만원, 김희경(71년졸) 100만원, 박교숙(71년졸) 100만원, 신명원(71년졸) 50만원, 신영은(71년졸) 100만원, 안미순(71년졸) 100만원, 오숙혜(71년졸) 100만원, 원정희(71년졸) 100만원, 유은화(71년졸) 100만원, 육해화(71년졸) 100만원, 윤혜경(71년졸) 100만원, 이계영(71년졸) 100만원, 이정혜(71년졸) 100만원, 이종숙(71년졸) 100만원, 이진숙(71년졸) 100만원, 이현선(71년졸) 100만원, 정경숙(71년졸) 100만원, 조태신(71년졸) 100만원, 채명순(71년졸) 50만원, 최선경(71년졸) 100만원, 최영화(71년졸) 100만원, 장봉애(72년졸) 100만원, 장선(72년졸) 100만원, 장옥경(72년졸) 100만원, 지순희(72년졸) 100만원  
**정치외교** 도원숙(58년졸) 1000만원, 박관규(66년졸) 100만원, 손봉숙(66년졸) 100만원, 연혜진(66년졸) 100만원, 이상옥(66년졸) 100만원, 이선우(66년졸) 100만원, 최하자(66년졸) 100만원, 이혜숙(69년졸) 300만원, 김영숙(70년졸) 100만원, 김영희(70년졸) 30만원, 방창해(70년졸) 30만원, 백영옥(70년졸) 30만원, 서염미(70년졸) 100만원, 심민주(70년졸) 30만원, 심재은(70년졸) 30만원, 이연표(70년졸) 100만원, 이영애(70년졸) 30만원, 임영선(70년졸) 30만원, 조백련(70년졸) 30만원, 조복선(70년졸) 30만원, 하정희(70년졸) 100만원, 이상옥(73년졸) 100만원, 문

애숙(75년졸) 30만원, 박순영(75년졸) 30만원, 손연숙(75년졸) 30만원, 오영(75년졸) 30만원, 유영숙(75년졸) 20만원, 유재경(75년졸) 30만원, 이명숙(75년졸) 30만원, 이옥희(75년졸) 30만원, 이창임(75년졸) 30만원, 장남옥(75년졸) 30만원, 정현선(75년졸) 30만원, 황영순(75년졸) 300만원, 김혜숙(78년졸) 100만원, 이희숙(80년졸) 300만원, 조가숙(82년졸) 300만원, 박수향(86년졸) 300만원  
**신문방송** 신문방송 7기(70년졸) 100만원, 신문방송 10기(73년졸) 300만원, 신문방송 12기(75년졸) 300만원, 신문방송 14기(77년졸) 200만원, 신문방송 19기(82년졸) 400만원, 이상옥(64년졸) 20만원, 장영수(64년졸) 100만원, 최현용(64년졸) 20만원, 채명자(66년졸) 100만원, 이경순(67년졸) 100만원, 강문숙(68년졸) 20만원, 권행옥(68년졸) 20만원, 김기옥(68년졸) 20만원, 김선희(68년졸) 20만원, 김소수(68년졸) 20만원, 김영자(68년졸) 20만원, 김영희(68년졸) 20만원, 박점순(68년졸) 20만원, 서춘자(68년졸) 20만원, 이명원(68년졸) 20만원, 이영화(68년졸) 20만원, 이은화(68년졸) 20만원, 이재희(68년졸) 20만원, 이혜영(68년졸) 20만원, 이희자(68년졸) 20만원, 정덕혜(68년졸) 20만원, 정영숙(68년졸) 20만원, 조용선(68년졸) 20만원, 최영옥(68년졸) 20만원, 하숙자(68년졸) 20만원, 김미령(69년졸) 325만원, 김용련(69년졸) 25만원, 박창해(69년졸) 25만원, 오영숙(69년졸) 25만원, 왕규원(69년졸) 25만원, 유재순(69년졸) 25만원, 이정임(69년졸) 25만원, 정정례(69년졸) 25만원, 조영애(69년졸) 25만원, 탁은희(69년졸) 25만원, 권처연(70년졸) 10만원, 김경애(70년졸) 10만원, 김복희(70년졸) 10만원, 김순자(70년졸) 10만원, 박필옥(70년졸) 10만원, 성인숙(70년졸) 100만원, 이강원(70년졸) 50만원, 이수옥(70년졸) 30만원, 이인순(70년졸) 100만원, 이혜숙(70년졸) 10만원, 정정희(70년졸) 10만원, 주복순(70년졸) 10만원, 황정인(70년졸) 30만원, 황혜숙(70년졸) 10만원, 이덕선(72년졸) 300만원, 이옥경(72년졸) 100만원, 주연애(76년졸) 100만원, 오영란(87년졸) 100만원, 이효정(87년졸) 100만원, 최은주(87년졸) 100만원  
**사회** 김영애(66년졸) 10만원, 김민주(66년졸) 10만원, 목영옥(66년졸) 10만원, 박상길(66년졸) 10만원, 박은자(66년졸) 10만원, 서상진(66년졸) 10만원, 서애자(66년졸) 10만원, 송문자(66년졸) 10만원, 유혜향(66년졸) 20만원, 윤창자(66년



다. 그 밖의 장학금 약정자는 다음과 같다.

황명순(정치외교75년졸)300만원, 홍영해(보건교육 75년  
졸) 100만원, 이은영(비서 05년졸) 200만원, 조성래(학부  
형) 300만원, 이화인닷컴 10만831원

## 이화국제재단 기금 소식

지난 3월 이화국제재단은 김메리 전 본교 교수  
(이화여전 음악과)의 추모예배에서 모은 현금  
\$4,790을 기탁, 본교 '김메리장학금'의 기금을 추  
가했다. 그밖에 이화국제재단 장학금으로 기탁한  
명단이다.

Chun Hi & Joseph Crivello Scholarship \$2,500,  
LA Young Nak Church Alumnae Scholarship  
\$1,000

## 발전기금 기탁 현황

약정기간: 2005.5.7~8.11

### 조형대 특별프로젝트기금 모금 현황

권구희 500만원, 김명환 1500만원, 김윤성 1000만원,  
서반숙 500만원, 안승길 300만원, 이상구 2000만원, 이상  
남 1000만원, 이정구 300만원, 이항란 1000만원, 최병조  
500만원, 한정란 1000만원

### 사대교육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교육** 교육학과 8기(57년졸) 400만원, 교육학과 25기  
(74년졸) 100만원, 교육학과 26기(75년졸) 100만원, 우순  
자(교육 58년졸) 100만원, 김은산(교육 59년졸) 100만원,  
임경숙(교육 72년졸) 100만원, 김경실(교육 75년졸) 100만  
원, 이현수(교육 85년졸) 100만원, 박은실(교육 92년졸)  
100만원 **교육공학** 김신자(67년졸) 50만원, 박화자(67년  
졸) 50만원, 장영자(67년졸) 30만원, 민은창(83년졸) 50만  
원, 백선화(83년졸) 50만원, 이상원(83년졸) 50만원, 이윤  
미(83년졸) 50만원, 최수은(83년졸) 50만원, 한덕실(83년  
졸) 50만원, 민혜진(89년졸) 500만원 **특수교육** 김수진  
(86년졸) 100만원, 조은주(86년졸) 100만원, 김은숙(88년  
졸) 100만원, 최승숙(96년졸) 100만원 **사회생활** 안영숙  
(69년졸) 20만원, 양병숙(75년졸) 100만원, 장영(75년졸)

100만원, 황현숙(75년졸) 30만원, 송선화(78년졸) 100만  
원, 이순실(78년졸) 100만원, 이옥순(78년졸) 100만원, 이  
윤경(81년졸) 30만원 **과학교육** 김규한 200만원, 김성원  
200만원, 박종운 200만원, 유정문 100만원, 한인식 100만  
원, 홍순태 300만원, 이정애(59년졸) 100만원, 박은미(87  
년졸) 50만원, 김정(91년졸) 20만원, 김홍선(91년졸) 10만  
원, 서재현(91년졸) 20만원, 이은영(91년졸) 30만원, 황정숙  
(91년졸) 10만원, 황정원(91년졸) 30만원, 강경원(93년졸)  
5만원, 고수연(93년졸) 5만원, 김유정(93년졸) 20만원, 김  
찬숙(93년졸) 3만원, 노정원(93년졸) 10만원, 문정숙(93년  
졸) 10만원, 방유미(93년졸) 10만원, 서지원(93년졸) 10만  
원, 성미현(93년졸) 10만원, 신은아(93년졸) 10만원, 오자영  
(93년졸) 3만원, 윤화정(93년졸) 10만원, 이연희(93년졸) 5  
만원, 임혜진(93년졸) 5만원, 조윤주(93년졸) 10만원, 함혜  
원(93년졸) 10만원, 강은영(94년졸) 5만원, 김성희(94년졸)  
10만원, 김혜경(94년졸) 10만원, 박근혜(94년졸) 10만원,  
박미현(94년졸) 10만원, 박수진(94년졸) 10만원, 양경화(94  
년졸) 10만원, 윤희(94년졸) 5만원, 장희정(94년졸) 5만원,  
정연희(94년졸) 10만원, 최정윤(94년졸) 10만원, 홍현수(94  
년졸) 10만원, 황성희(94년졸) 10만원, 고은정(05년졸) 2만  
7100원, 구자윤(05년졸) 2만7100원, 김미경(05년졸) 11만  
7100원, 김수진(05년졸) 2만7100원, 김연정(05년졸) 1만  
7100원, 김윤주(05년졸) 2만7100원, 김민숙(05년졸) 2만  
7100원, 김태연(05년졸) 2만7100원, 김혜경(05년졸) 2만  
7100원, 박수빈(05년졸) 9만7100원, 배은영(05년졸) 2만  
7100원, 상나연(05년졸) 2만7100원, 송주연(05년졸) 2만  
7100원, 신호성(05년졸) 7만6700원, 양혜진(05년졸) 2만  
7100원, 유승령(05년졸) 1만7100원, 윤화정(05년졸) 2만  
7100원, 이나영(05년졸) 11만7100원, 이소라(05년졸) 2만  
7100원, 이소정(05년졸) 2만7100원, 이영주(05년졸) 2만  
7100원, 이진경(05년졸) 2만7100원, 이혜미(05년졸) 9만  
7100원, 장혜란(05년졸) 2만7100원 **수학교육** 김선화(96  
년졸) 200만원 **교육대학원** 유혜원(04년졸) 100만원  
**익명** 700만원

### 동대문병원 발전기금 모금 현황

강덕희 1000만원, 김영후 1000만원, 황규광 300만원

### 소아과교실 프로젝트기금

김순화 (의학 78년졸) 100만원

###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김광호 180만원, 김용재 300만원, 오세관 500만원, 최  
경규 1000만원

### 의과대학기숙사 신축기금 모금 현황

김광호 180만원

### 간호학과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이금재(간호 57년졸) 50만원, 김재현(간호 75년졸) 50만  
원, 김현영(간호 75년졸) 50만원, 오세숙(간호 75년졸) 50  
만원, 이재운(간호 75년졸) 100만원, 이진영(간호 75년졸)  
50만원, 전봉란(간호 75년졸) 500만원, 조혜숙(간호 76년  
졸) 500만원, 현해시(간호 78년졸) 20만원, 심윤희(간호 81  
년졸) 500만원, 정은재(간호 93년졸) 200만원, 류한주(간  
호 00년졸) 100만원, 홍수정(간호 03년졸) 50만원, 강경진  
(간호 04년졸) 200만원, 편해준(간호 04년졸) 100만원

### 생활환경대학 발전기금 모금 현황

이수옥 (가정관리 75년졸) 333만3000원, 최수주 (식품  
영양 75년졸) 333만3000원, 조효숙 (의류직물 75년졸)  
333만4000원

### 교육대학원 발전기금 모금 현황

박기춘 (유아교육 63년졸) 300만원

### 임상치의학대학원 발전기금 모금 현황

조민영 (임상치의학대학원 석사과정) 400만원

황혜진 대외협력처장은 8월 10일부터 18일까  
지 뉴욕과 워싱턴에 있는 UN, 국제기구, 폴브라  
이트재단, 미연합감리교회, 동창회 등을 방문하  
여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젝트(EGPP)를 홍  
보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왼쪽부터 워싱턴DC지회 이명지 동창, 황혜진  
대외협력처장, 폴브라이트 여사, 신장현 국제재단이사,  
홍춘혜 총동창회 워싱턴DC지회장

졸) 50만원, 정행자(66년졸) 10만원, 한국자(66년졸) 50만원, 양옥남(66년졸) 20만원, 윤명  
근(66년졸) 10만원, 장하진(66년졸) 50만원, 표경희(66년졸) 500만원, 장미자(67년졸) 100  
만원, 김문정(70년졸) 100만원, 이미형(72년졸) 100만원, 김덕신(73년졸) 1000만원 **수학**  
김혜진(04년졸) 3만원 **화학** 조두영(74년졸) 30만원 **생물** 오현주(70년졸) 100만원 권용  
재(76년졸) 25만원, 김문선(76년졸) 25만원, 김소희(76년졸) 25만원, 노윤경(76년졸) 25만  
원, 도영순(76년졸) 30만원, 신숙(76년졸) 30만원, 윤재순(76년졸) 25만원, 이경구(76년졸)  
25만원, 이진숙(76년졸) 25만원, 이혜원(76년졸) 25만원, 정우영(76년졸) 25만원, 정원희(76  
년졸) 25만원, 정진순(76년졸) 25만원, 차은희(76년졸) 25만원, 최순희(76년졸) 25만원, 최  
용재(76년졸) 25만원, 한상진(76년졸) 10만원, 강화영(81년졸) 10만원, 김옥경(81년졸) 50만  
원, 김혜정(81년졸) 10만원, 도은영(81년졸) 10만원, 이혜숙(Ms.Heather Kim)(81년졸) 10만  
원, 임명혜(81년졸) 10만원, 임승희(81년졸) 10만원, 장정원(81년졸) 10만원, 조서영(81년졸)  
30만원, 최미숙(81년졸) 10만원, 박경숙(85년졸) 5만원 **기악** 방명혜(67년졸) 300만원  
**건반악기** 강다영(04년졸) 100만원 **건반악기(오르간)** 장혜주(05년졸) 300만원  
**정보디자인** 강소연(00년졸) 5000원 **체육** 방봉세(51년졸) 1000만원, 고영희(57년졸)  
1000만원, 고선혜(67년졸) 1000만원 **초등교육** 서영화(66년졸) 200만원, 이재영(02년졸)  
1만원 **법학** 박상진(78년졸) 300만원, 노정희(86년졸) 300만원 **경영** 김옥순(69년졸)  
100만원, 오은영(71년졸) 100만원 **의학** 최인숙(71년졸) 50만원, 강옥희(73년졸) 30만원,  
권혜숙(73년졸) 30만원, 김정례(73년졸) 30만원, 박재원(73년졸) 30만원, 박현혜(73년졸)  
30만원, 변명현(73년졸) 30만원, 서현숙(73년졸) 30만원, 용현국(73년졸) 29만원, 이경숙  
(73년졸) 29만원, 이수남(73년졸) 29만원, 이숙희(73년졸) 29만원, 이영옥(73년졸) 29만원,  
이영희(73년졸) 29만원, 조은구(73년졸) 29만원, 조혜완(73년졸) 29만원, 주경빈(73년졸)  
29만원, 주백연(73년졸) 29만원, 김혜란(77년졸) 85만원, 김순화(78년졸) 50만원, 김윤희  
(78년졸) 50만원, 김정애(78년졸) 20만원, 문인숙(78년졸) 20만원, 문혜란(78년졸) 50만  
원, 박순실(78년졸) 20만원, 신화자(78년졸) 20만원, 안경숙(78년졸) 30만원, 이강영(78년

졸) 10만원, 이세정(78년졸) 50만원, 한혜기(78년졸) 20만원 **간호** 간호대학66년졸업생  
일동(66년졸) 200만원, 간호 17기(75년졸) 200만원, 강홍순(Heung Soon Cho)(59년졸)  
\$1,000, 민강자(67년졸) 200만원, 최화숙(77년졸) 50만원 **약학** 약대 6기(55년졸) 300  
만원, 약대 7기(56년졸) 300만원, 약대 8기(57년졸) 300만원, 약대 12기(61년졸) 500만  
원, 약대 16기(65년졸) 600만원, 약대 26기(75년졸) 200만원, 장현숙(60년졸) 700만원,  
노익현(65년졸) 300만원, 김송자(67년졸) 10만원, 김수옥(67년졸) 10만원, 김예주(67년졸)  
20만원, 김진애(67년졸) 10만원, 박경자(67년졸) 10만원, 박연미(67년졸) 10만원, 유호정  
(67년졸) 10만원, 이상혜(67년졸) 20만원, 이숙정(67년졸) 10만원, 지화자(67년졸) 20만원,  
황규재(67년졸) 20만원, 황현숙(67년졸) 100만원, 장정옥(70년졸) 100만원, 김경희(72년  
졸) 200만원, 김경애(75년졸) 300만원, 조진희(75년졸) 300만원, 이미원(83년졸) 100만원  
**제작** 제작 5기(75년졸) 100만원 **가정** 김병숙(55년졸) 10만원, 김옥자(55년졸) 10만원,  
김장자(55년졸) 10만원, 김취복(55년졸) 10만원, 박정순(55년졸) 100만원, 송영자(55년졸)  
10만원, 신익철(55년졸) 10만원, 염정자(55년졸) 10만원, 이병림(55년졸) 10만원, 이혜순  
(55년졸) 10만원, 한병희(55년졸) 10만원, 최남숙(65년졸) 1000만원, 박기경(51년입학) 10  
만원 **기타** 최은봉(정치외교학전공, 정치외교 81년졸) 200만원, 송유재(언론홍보영상학부,  
신문방송 66년졸) 100만원, 이명취(경제학전공, 경제 85년졸) 500만원, 이인숙(생명과학전  
공, 생물 73년졸) 200만원, 이용하(수학교육과) 200만원, 김애련(평생교육원 교학부, 교육  
공학 78년졸) 300만원, 이양준(대외협력과, 정치외교 70년졸) 300만원, 박혜선(인사과, 사  
회 72년졸) 300만원, 김남숙(연구과, 사회 74년졸) 300만원, 윤영희(기획과, 교육공학 79  
년졸) 100만원, 이복희(자연과학대학 행정실, 화학 79년졸) 100만원, 박경옥(관재과, 법학  
83년졸) 100만원, 서미옥(예산과, 경제 85년졸) 200만원, 김윤옥(후생복지과, 식품영양 73  
년졸) 200만원, 이나니(중앙도서관) 30만원, 이정희(중앙도서관) 100만원, 최은숙(중앙도서  
관) 100만원, 이영희 7기 1000만원, 장정자(이영희 70기) 300만원, 최은희(학부형) 2000  
만원

# 회갑 맞은 의과대학, 성대한 기념 잔치

**의과** 대학이 9월 9~10일,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마련한다. 9일에는 학술대회·기념식·기념 공연(합창)·의학관 시찰·만찬 등이, 10일에는 체육대회 및 이화동창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 학술대회에서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의료원 임상과(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과, 방사선과, 신경정신과) 및 성인지의학 등 8개 분야가 참여한다. 성인지의학 분야에서는 미국 콜럼비아 의과대학의 Marianne J. Legato 박사가 초청되어 강연할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여성 의과대학이며 여성 의료전문인의 산실로 자리 잡은 의과대학은 1945년 행림원 의학과로 설립, 93명의 첫 입학생

받아들였다. 이후 몇 차례의 개편을 거쳐 1949년 의약대학이 의학대학과 약학대학으로 분리됨에 따라 의과대학으로 승격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부속병원으로는 1987년 고종황제가 보구여관이라고 명명한 동대문병원을 모체로 하는 동대문병원과 1993년 9월 대규모 종합병원으로 개원한 목동병원이 있다. 1995년 의과학연구소를 설립, 현재 16개의 연구센터를 운영하며 의학 연구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1963년에 첫 박사를 배출했으며, 3500여명(2004년 현재)의 졸업생들이 이화의 진신미 이념을 국내외 의료현장에서 실천해오고 있다. 2007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동대문병원

### 북한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 의료장비 기증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으로 북한주민에 실질적 도움

동대문병원(원장 연규월)은 최근 남북 보건의료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 CT(진단방사선 의료장비)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북한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나눔인터내셔널(대표 이윤상)의 도움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의료장비는 7월1일(수)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타송되었다. 동대문병원은 CT외에도 항온항습기와 자동전압조정장치를 기증했으며, CT의 안전 설치를 위하여 전압주파수변환장치(C.V.C.F)와 CT실 납출입문, 납유리와 납유리창문 등을 함께 타송했다. 기증된 장비들은 7월 중순 남쪽 기술자들이 방북해 북한 기술자들과 함께 북한의 조선적십자종합병원 CT실에 설치했다.

북한의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은 1948년 설립된 1000병상 규모의 북한 최대 임상병원으로, 2004년부터 남북 의료 교류사업을 통해 병원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대문병원 의료진들은 이번 지원을 남북 보건의료협력사업의 첫걸음 삼아 앞으로 북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 및 의료기술 교류로 발전할 수 있길 기대했다.

## 의료지원단 발대식 가져



목동병원(원장 서현숙)은 7월11일(월·오후 1시) 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의료봉사활동 지원을

체계화했다. 의료지원단은 가정의학과 이홍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봉사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수재민돕기 의료봉사 등 이대 목동병원의 봉사활동을 돕는 인적, 물질 지원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서현숙 목동병원장은 "앞으로 의료지원단의 활동으로 이대 목동병원의 의료봉사가 더욱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진행되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의 손길이 모두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의료봉사활동 준비와 그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목동병원은 의료지원단의 구성을 계기로, 원내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목동병원

## 동정

### 정형외과 김영호 교수 KBS 의료자문위원 위촉



7월29일 KBS 의료자문위원으로 위촉돼 KBS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제 4기 의료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김 교수는 앞으로 2년간 KBS뉴스와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거나 제작과 관련한 자문활동을 펼치게 된다.

### 환자 중심 소화기센터 개소 최신 내시경 기기 도입



소화기센터가 7월30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기존의 공간을 확장한 내시경실에는 환자 중심의 쾌적한 회복실과 화장실 등이 마련되었으며, 최신 내시경 기기가 도입되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진료가 가능해졌다.

또한 24시간 내시경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어 당일 응급내시경이 가능하며, 치료내시경으로 검진과 치료를 함께 병행한다.

소화기센터가 7월30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기존의 공간을 확장한

### 유방센터 디지털 유방촬영기 신규 도입 관련 세미나



유방센터가 주관하는 디지털 유방촬영기 관련 세미나(Digital mammography GE Senographe DS Seminar)가 7월14일(오후 6시 반) 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유방센터가

지난 5월국내 최초로 도입한 Senographe DS 디지털 유방촬영기는 기존 촬영기보다 피폭선량이 적고 신체부위에 대한 압박감을 줄여주어 환자들의 불편함이 대폭 개선됐다. 또한 영상의 대조도가 뛰어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영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